최희섭

"거포들이여 깨어나라"

4강행 갈길 바쁜 KIA 중심 타선 침묵에 '답답' 삼성·롯데전 고전 예상

들쭉날쭉 KIA타선에 4강 기약이 불안하다.

최하위 LG 트윈스와의 하반기 첫 3연전을 2연패로 시작한 KIA 타이거즈가 최근 중심타선의 부침으로 힘겨운 4강 싸움을 하고 있다.

KIA는 지난달 26일 LG와의 하반기 첫 경기에서 8개의 안타를 가지고 2점을 뽑는 졸전을 펼치며 2-4로 뼈아픈 패배를 기록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국가대표 테이블 세터 이용규가 '나홀로 3안타'를 터트리며 분투했지만 8명의 타자들이 모두 침묵하면서 팀은 0-3으로 영패를 당했다.

연거푸 패배를 기록하면서 궁지에 몰린 KIA는 지난달 28일 에이스 윤석민을 내세우고서야 하반기 첫 승을 올릴 수 있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방망이는 이날 15안타를 몰아치며 8점을 뽑아내는 기염을 토했지만, 다음 경기에선 10개의 안타로 3점을 만들어내는 데 그치며 고질적인 집중력 부재를 노출했다.

지난달 30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8회 노장 이종범의 결승타로 2-1 겨우 3연승을 이어나간 KIA는 연승행진 속에서도 들쑥날쑥한 타력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제는 무게감 없는 중심타선이다.

부상에서 돌아온 최희섭은 기대와 달리 지난달 30일까지 최근 5경기에서 17타수 3안타로 0.176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최희섭과 함께 타선의 중심을 맡고 있는 이재주도 0.200의 타율로 제 몫을 못하고 있다.

장성호가 외야수로 자리를 옮기면서까지 이재주와 최희섭이 동시에 타석에 들어서고 있지만 기대만큼 결과가 신통치 않다. 지난달 30일 경기에서는 1사 2·3루 상황에서 상대 투수 송신영이 장성호를 고의사구로 거르면서까지 4번타자 최희섭과의 승부를 택하는 등 최희섭은 '빅 리거'로서의 자존심을 구겼다.

이번주 KIA는 4강 싸움의 유리한 고지에 서있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와 '죽음의 6연전'을 앞두고 있다. 두 팀 모두 불붙은 타격으로 거침없는 질주를 하고 있는 만큼 타선 싸움에서 고전이 예상되고 있다. 최희섭과 이재주 조합의 부활에 팀의 사활이 걸려있다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히어로즈에 0-5 완패

KIA 타이거즈가 지난달 31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벌어진 히어로즈와의 15차전에서 무력한 타선 탓에 0-5로 영패를 당했다. 히어로즈가 이날 16개의 소나기 안타를 퍼붓는 동안 KIA 타선은 안타 4개를 뽑는데 그쳤다.

이재주

"이승엽 당분간 5번 타자"

하라 감독 닛칸 스포츠 인터뷰

이틀 연속 멀티 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를 뽑아내며 타격감 회복을 알린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이 당분간 5번 타자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일본 스포츠전문지 닛칸스포츠에 따르면 하라 다쓰노리 요미우리 감독은 "승짱(이승엽)은 '럭키 보이'다. 앞으로도 5번으로 쓸 것"이라며 "이승엽은 원래 4번 타자로 선발 출장해야 하는 선수"라며 강한 믿음을 보였다.

하라 감독은 스포츠호치와 인터뷰에서는 "이승엽은 지난달 29일 2안타를 칠 때부터 자신의 배팅(으로 돌아왔다)"이라며 "원래 4번 타자인 만큼 (클린업트리오에서) 붙박이로 활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엽은 지난달 29일 한신전에서 4타수 2안타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결승타를 포함해 3타수 3안타로 팀 승리를 이끌면서 타격 컨디션이 돌아왔음을 증명했다.

이승엽은 3안타를 치고 나서 "고민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자신을 갖고 타석에 들어서고 있다"며 심리적인 안정을 찾았음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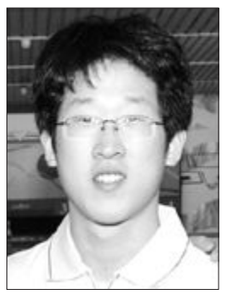
한편 이승엽이 이틀 연속 맹활약을 펼치자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올림픽 본선 기간 이승엽의 활약상을 함께 언급하면서 그에게 요미우리의 역전 우승을 이끌어줄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나달 US오픈 테니스 16강 안착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열린 US오픈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3회전에서 빅토르 트로이츠키(71위·세르비아)의 공을 받아내고 있다. 나달이 3-0으로 승리해 16강에 안착했다. /연합뉴스

광양시청 최복음 2관왕

3인조 이어 대회 첫 개인종합 우승

세계 남자 볼링선수권



최복음(21·광양시청·사진)이 2008 세계 남자볼링선수권대회 개인종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최복음은 지난달 29일 밤 태국 논타부리에서 끝난 개인전에서는 1천247점을 기록해 입상권에 들지는 못했지만 개인전과 2인조, 3인조, 5인조 성적을 합산한 개인종합에서는 총점 5천285점(에버리지 220.2점)을 얻어 2위 미국의 리노 페이지(총점 5천218점)를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개인종합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남자 볼링은 1991년 세계선수권에서 서범석이 개인종합 동메달, 2006년에도 조남이가 역시 동메달을 따낸 게 역대 최고 성적이었다.

지난달 25일 열린 3인조에서 최기봉(충남도청), 김태영(부산시청)과 조를 이뤄 금메달을 목에 건 최복음은 이번 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하는 기쁨도 누렸다.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성료

광주시생활체육협의회(회장 김창준)가 동호인간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해 지난달 31일 호남대학교체육관에서 개최한 '호남대학교 개교 30주년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가 성료됐다.

이날 대회에는광주지역 약 1천여명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한편 이날 광주시생활체육협의회는 호남대학교 이화성 설립이사장과 장병완 총장에게 생활체육 활성화 기여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포츠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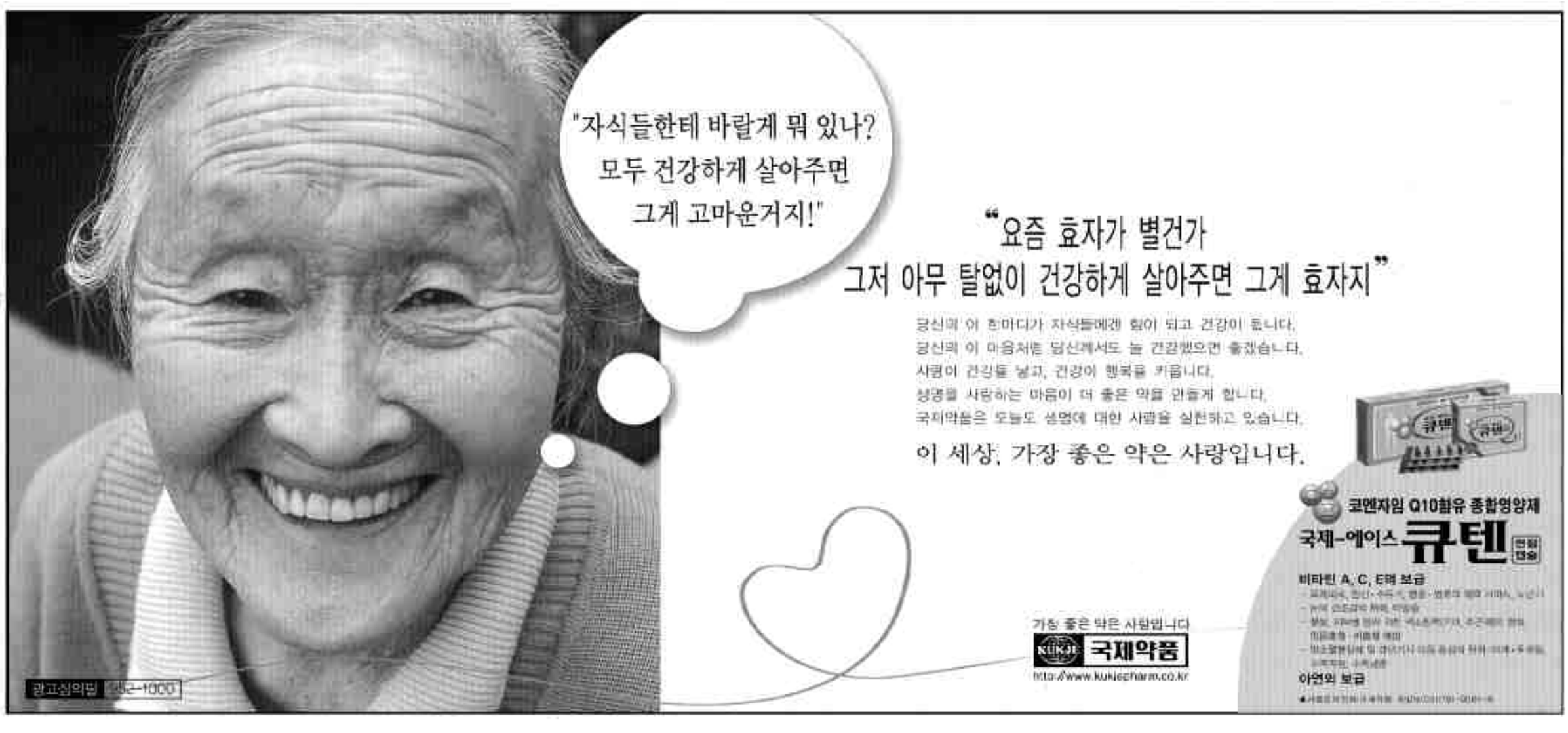
1일(월)

▲2008 PGA 도이치뱅크 챔피언십 3R (04 : 00·SBS스포츠·SBS골프)

▲2008 IBK기업은행배 양산 프로배구 여자부〈현대건설 : 흥국생명〉(16 : 00·KBS N SPORTS), 남자부〈현대캐피탈 : 한국전력〉(19 : 00·KBS N SPORTS)

배연주 女 단식 우승

인도네시아 배드민턴 선수권

배연주(성지여고 3년)가 2008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챌린지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여자단식 정상에 올랐다.

배연주는 지난달 30일(한국시간)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의 수디르만 배드민턴홀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여자단식 결승에서 로사리아 유스핀 풍카사리(인도네시아)를 2-0(21-18 24-22)으로 꺾고 우승했다고 선수단이 알려왔다. 남자복식에서는 유연성(원광대)-조건우(삼성전기) 조가 3위를 차지했다.